

이순신 서사에 나타난 明(人) 인식

— 신채호의 『이순신전』과 이광수의 『이순신』을 중심으로

이 경 재**

[초 록]

이 글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영웅인 이순신을 다룬 신채호의 『이순신전』과 이광수의 『이순신』에 나타난 明(人)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민족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 나타나는 민족 영웅 서사를 통해 배제와 결속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일이기도 하다. 두 작품은 한중일이 모두 참여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기존 논의에서는 이들 작품에 나타난 明(人)에 대한 인식에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민족국가가 형성되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결속의 메커니즘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서도 강력하게 드러난다. 신채호가 주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에 바탕해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했다면, 이광수는 일본(인)보다도 중국(인)에 대한 멸시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광수의 『이순신』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형

*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제어: 이순신, 신채호, 이광수, 명(인), 만보산 사건, 만주사변
Lee Sun-shin, Shin Chae-ho, Lee Kwang-soo, Ming Dynasty and Ming People,
Wanpaoshan Incident, Manchurian Incident

상화라는 측면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만세전』, 1906)에 이어지는 작품이다. 「혈의 누」는 제1차 조선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인직의 과도한 근대지향성(일본지향성)은 「혈의 누」에서 만국공법을 매개로 하여 일본을 문명국으로 이상화하고 중국을 야만국으로 열등화하였다. 「혈의 누」로부터 약 1세대가 지난 후에, 이광수도 임진왜란이라는 또 다른 한·중·일의 국제전을 무대로 하여, 자신의 왜곡된 정치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작가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에서도 비롯되는 것이지만, 두 편의 신문연재소설이 창작되던 당대의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신채호의 『이순신전』은 작품 속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제국주의 세력의 조선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대적 조류에 항거하며 쓰여졌던 것이다. 이와 달리 이광수의 『이순신』은 만보산 사건으로 배화열(排華熱)이 극에 달하고,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이 발발하던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다. 이광수의 『이순신』이 쓰여지던 시기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전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전시라는 상황은 과도할 정도로 명(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시각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1. 서론

주지하다시피 서구에서 발생한 자본주의와 민족국가를 통해 근대는 시작되었다. 이중 민족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첫 번째는 이전의 제국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절대왕권을 타도한 시민혁명 후에 탄생한 민족국가(주권국가)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 즉 상위에 있는 제국을 부정하는 곳에서만 성립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국으로부터 이탈한 성원들에게 또 다른 공동체(민족)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야만 한다. 제인 버뱅크와 프레더릭 쿠퍼가 주장하듯이 “민족국가의 뿌리를 ‘종족적’이라고 여기든 ‘시민적’이라고 여기든,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결합된 것이라고 여기든, 민족국가는 공통성

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만들어내”야만 하며, “민족에 포함되는 사람들과 배제되는 사람들을 확고하게 구별하고 대개 이 구별을 엄격하게 단속”¹⁾ 해야 하는 것이다.²⁾

우리의 근대전환기 역시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에서 벗어나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삼은 시기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제국으로부터 이탈해 새로운 민족공동체가 되는 과정에서는 기억과 망각의 정치가 작동하기도 하며, 이러한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민족영웅의 발굴과 현창(顯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문학장에서든 활발하게 일어난다. 개화기에 수많은 역사·전기물이 창작되고 유통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전환기 새로운 공동체의 창출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민족영웅이 바로 이순신이다. 이것은 근대 전환기에 가장 많이 작품화 된 역사 인물이 이순신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신채호의 『이순신전』과 이광수의 『이순신』을 통해 근대전환기의 특징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개의 텍스트는 근대 전환기 이순신을 다룬 대표적인 서사물로서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상황이나 시대정신과도 밀접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두 작품을 나란히 두고 이순신 표상에 담긴 의미를 살펴본 연구들은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반일/친일, 민족주의/식민주의라는 이분법에 바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임순은 “신채호는 이순신을 조선 역사의 예외적인 영웅으로 만들”었으며, 이광수는

1) Jane Burbank and Frederick Cooper (2016), 『세계제국사』, 이재만 역, 책과함께, p. 28.

2) 이 엄격한 이분법 속에는 반드시 배제와 갈등의 폭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주권 국가의 관념이 유럽을 넘어서 일반화된 것은 그것의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유럽이 비서양국가를 침략할 때 제국을 붕괴시키기 위해 주권국가의 원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순신을 성인으로 추앙하는 소설적 장치를 통해 “조선 오백년의 역사를 부정과 오욕의 역사로 단죄하는 강박적인 식민 주체를 낳는다.”³⁾고 보았다. 최영호는 “신채호의 경우가 반외세 국권회복이란 당대의 핵심적인 과제를 작품의 주제로 삼았는데 반해, 이광수의 경우는 모든 것을 이순신에게만 맞춘 관념적 계몽주의 차원에서 작품화”⁴⁾했다고 보았다. 이민용은 “신채호가 애국적인 관점에서 국가를 위기에서 건질 영웅의 등장을 기대하며 『이순신전』을 썼다면,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의 연장선상에서 이순신을 제외한 모든 조선 사람들은 열등했고 이로 인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부각하려는 듯한 서술을 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⁵⁾라고 지적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논의에서도 김성진은 신채호의 「수군제일위인 이순신전」은 “부국강병을 통해 약소국에서 벗어나 제국주의 국가가 되고 싶은 욕망을 표현”했다면, 이광수의 『이순신』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을 조선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찾았던 「민족개조론」의 주장을 이 작품에서 되풀이”⁶⁾했다며 전형적인 이분법을 반복하고 있다.⁷⁾

반일/친일, 민족주의/식민주의의 이분법도 기본적으로는 민족국가의 성립이라는 근대전환기의 근본의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전의 제국으

3) 공임순(2003), 「역사소설의 양식과 이순신의 형성 문법」, 『한국근대문학연구』 4권 1호, p. 210.

4) 최영호(2003),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한국 문학 속에 나타난 이순신」, 『이순신연구논총』 창간호, p. 103.

5) 이민용(2007), 「역사 소설에 그려진 이순신」, 『한국사 시민강좌』 41호, pp. 82-83.

6) 김성진(2017), 「이순신 역사 소설에 투영된 작가와 시대의 욕망」, 『문학치료연구』 45집, p. 149.

7) 예외적으로 김경연의 논의는 이러한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다. 신채호의 『이순신전』에서도 조정이 부패하고 분열되었으며 이순신 혼자 민족을 살렸다는 진단을 빈번히 찾을 수 있다며, “이는 이광수의 『이순신』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는 같은 논리이며 따라서 식민지 시기 이광수의 『이순신』이 친일적 역사관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는 1908년 신채호의 서사와의 비교 속에서 면밀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김성연(2013), 「거북선이라는 외피와 『난중일기』라는 내면 : 1931년 여름, 『동아일보』와 이광수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40집, p. 52]고 주장한다.

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배제와 결속의 메커니즘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신채호의 『이순신전』과 이광수의 『이순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배제와 결속이 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관계를 통해 고찰되었다. 공임순이 “일본군은 뛰어난 재략과 전술을 겸비한 군대로 그려”지는데 반해, “조선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다.”⁸⁾라고 말하거나 이민웅이 “우리 민족은 비하하면서 일본인들은 훌륭하게 서술한 것”⁹⁾을 이광수가 창작한 『이순신』의 주요한 특징으로 들고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두 작품은 모두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한중일이 모두 관련된 국제전이었다. 특히 중국 중심의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조선의 근대전환기라는 맥락에서, 明(人)에 대한 인식은 일본(인)에 대한 인식만큼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들 작품에 나타난 명(인)에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족국가가 형성되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결속의 메커니즘이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지점이다. 이 작품에서는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않았던 명(인)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전환기 이순신 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서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조선 시대에 창작된 이순신 서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채호와 이순신의 명(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 지어 논의하고자 한다.¹⁰⁾ 모든 역사가 당대 문제의식의 반영인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소설

8) 공임순(2003), p. 200.

9) 이민웅(2007), p. 72.

10) 대부분의 기존 논의는 신채호의 『이순신전』과 이광수의 『이순신』에 나타난 차이를 작가가 지닌 사상이나 이념, 일테면 이광수의 민족주의 우파의 문화주의적 실력 양성론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해왔다. 필자는 기존 논의에 동의하면서,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을 열고자 작가의 사상이나 이념보다는 시대적 배경과

도 언제나 당대의 인식과 욕망에 의해 새롭게 조형되기 때문이다.

2. 조선 시대 이순신 서사에 나타난 明(人) 인식

2.1. 임진왜란 무렵의 明(人) 인식 — 『난중일기』와 『이충무공행록』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당시와 직후에 이순신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문헌은 『난중일기』와 『이충무공행록』이라고 할 수 있다.¹¹⁾ 2장에서는 이 두 문헌에서 명(人)이 형상화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난중일기』에서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명나라 군사들이 바로 송도를 치고, 이달 6일에는 서울에 있는 왜적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계사년 2월 16일)¹²⁾와 같이 중요한 사실(史實)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적으로 명군과 접촉하는 이야기는 계사년 5월 24일 일기에 처음 등장한다. 그것은 명나라 관원 양보가 진문에 이르자, 우별도장 이설을 마중 보내어 배까지 인도해 오게 한다는 내용이다. 양보가 “우리 전함의 위용이 성대하다고 매우 칭찬했다.”(112)고 기록되어 있다. 30일의 일기에는 원균을 비난하며 “명나라의 배신(陪臣)이 보낸 화공 무기인 화전 천오백서른 개를 나누어 보내지 않고 혼자서 모두 쓰려고 하니 그 잔피는 심히 다 말로 할 수가 없다.”

상황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11) 『이충무공행록』보다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당시의 이순신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문헌들이다. 장경남은 「이순신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민족문화사연구』 35호, 2007)에서 이순신의 형상화 초기에는 『이충무공행록』이 주로 활용되었고, 현대로 올수록 『이충무공행록』보다 『난중일기』가 동시에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2) 이순신(2010), 노승석 옮김, 『난중일기』, 민음사, p. 81.

(115)고 하여, 명나라의 실질적인 지원이 언급된다.

명나라 군인들이 진중에 와서 조선군과 함께 수군의 형세를 살피는 등의 일(계사년 6월 13일 일기 등)도 여러 차례 나온다. 갑오년 7월 18일에는 “우리 수군과 함께 합세하여 힘을 크게 펼쳐서 추악한 적의 무리들을 모두 무찌르자고 간절하게 이야기”(191)하는 장면이, 갑오년 7월 20일 일기에는 이순신이 장홍유와 진한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임진왜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병신년 7월 13일에 황신과 권황이 명나라 사신을 따라 일본에 건너갈 때, 그들이 타고 갈 배 세 척을 정비하여 보내는 이야기가 언급된다.

정유재란이 발발한 이후인 무술년에 들어서면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과 관련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무술년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일기 중에서 명나라 군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5일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명나라 도독 진린과 함께 일시에 군대를 움직여 나로도에 가서 잤다.”(무술년 9월 15일, 443면)나 “명나라 군사 열한 명이 탄환에 맞아 죽었다.”(무술년 9월 22일, 444면)와 같이 명나라와 함께 싸움에 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무술년 10월의 일기도 9월과 상황은 비슷하며, 10월 3일의 일기에는 전쟁에 최선을 다하는 진린과 명나라 군대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11월 8일의 일기에는 “도독이 보자고 청하기에 바로 갔더니, 도독이 말하기를, ‘순천의 왜교(倭橋)의 적들이 10일 사이에 철수하여 도망한다는 기별이 육지로부터 왔으니, 급히 진군하여 돌아가는 길을 끊어 막자.’고 하였다.”(448)라고 하여 널리 알려진 진린의 일본 내통설과는 다른 주장이 분명하게 진술된다. 그러나 14~16일의 일기에는 연속으로 진린과 일본의 내통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순신의 조카인 이분이 쓴 『이충무공행록』(1610?)¹³⁾에서는 진린과 관련하여 명(인)의 부정적인 모습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순

신의 지략과 인품으로 이는 곧 극복된다. 1958년 7월 16일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이 수군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순신의 진이 있는 고금도로 온다. 이 때 이순신은 진린이 “본시 사람됨이 거칠고 오만”¹⁴⁾한 것을 알고, 융숭하게 대접하여 자신을 칭송하게 한다. 또한 진린의 군사들은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118), 우리 군사와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에 맞서 이순신은 거짓으로 진영을 떠나는 척 하며, 진린으로부터 명나라 군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낸다. 이를 통해 명군의 약탈과 횡포를 막아낼 뿐만 아니라 명군은 진린보다도 이순신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 이후에는 진린이 공을 탐하며 행패를 부리자, 조선군이 배어 온 수급을 모두 진린에게 주어 해결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진린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 판옥선을 타고 이순신의 지휘를 받기”(123)를 원하고, “모든 호령과 지휘를 양보하였고, 반드시 이순신을 ‘이야’(李爺)라고 높여”(124) 부르게 된다.

결국 이순신과 진린은 일본에 맞서 함께 싸우는 믿음직한 전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뇌물 공세에 진린이 흔들리는 이야기가 이어진다.¹⁵⁾ 진린은 적의 뇌물을 많이 받고 그들이 빠져나갈 길을 터주려 하고, 이순신이 이를 거절하자 둘은 한참을 다투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이 숨을 거둔 노량해전에서 진린은 최선을 다해 일본군과 맞서 싸운다. 전투 중에 이순신이 순국하자, 진린과 명나라 군사들은 진심으로 슬퍼하며 통곡한다.

13) 『이충무공행록』의 정확한 집필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분이 1619년에 사망한 것으로 미루어, 대략 161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14) 이분(2019), 김해경 옮김, 『이충무공행록 — 작은아버지 이순신』, 가갯날, p. 118. 『징비록』에서는 “진린은 성격이 포악하고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모두 그를 꺼려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심지어 “진린의 군사가 고을 수령을 함부로 때리고 욕하며, 찰방 이상규의 목을 새끼줄로 매어 끌고 다니며 피투성이를 만드는 모습을 본 나는 통역관에 그를 풀어주도록 했다.”(211)는 일화도 등장한다.

15)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진린이 왜군과 내통한 이야기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임진왜란의 당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난중일기』와 『이충무공행록』에서 명(인)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에 가깝다. 『난중일기』에서는 계사년 7월 20일의 일기에 등장하는 허위 보고와 진린과 왜적과의 내통 가능성이 부정적인 모습에 가까우며, 나머지는 우호적이고 믿을만한 전쟁의 동반자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충무공행록』에도 진린의 탐욕스러움과 명군의 행패, 그리고 배신 등이 덧붙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이순신의 인품과 지혜로 쉽게 해결된다. 『이충무공행록』에는 『난중일기』보다 명(인)의 부정적인 모습이 더욱 많이 등장하지만, 동맹으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

2.2. 병자호란 이후에 나타난 명(인) 인식

임진왜란 직후에 이루어진 공신 녹훈작업(선조 34년 3월~선조 37년 10월)에서 당시 집권층은 전쟁극복의 주된 요인을 명나라 원병에서 찾고 호성공신만을 우대하고자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순신은 원균과 함께 선무공신에 책봉된다.¹⁶⁾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이순신에 대한 평가는 이전과 달리 높아진다. 이것은 병자호란 이후 명나라와의 관계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의리의 차원에서 인식”¹⁷⁾한 것과 관련된다.

숙종 초반 삼변의 난이 진압되면서 명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
- 16) 노영구(2004), 「역사 속의 이순신 인식」, 『역사비평』 69호, p. 341. 호성공신을 우대하고 명나라 군의 참전을 강조하는 선조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조정의 전쟁준비 부족으로 전쟁 초기에 국토가 대부분 일본군에 유린되고 조정의 권위가 실추된 것을 만회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한명기(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pp. 80-81].
- 17) 허태구(2019),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p. 357. 당대 조선사회에서 척화나 대명어리는 ‘폐모’(廢母)만큼이나 정치인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기준이었으므로, 한 개인의 정치적 행적을 공격하고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허태구(2019), p. 357].

사라지자, 존명대의론(尊明大義論)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던 북벌운동은 현실화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현실적 차원이 아닌 사상적·문화적 차원에서 북벌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제 조선이 곧 중화라는 이른바 조선중화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순신에 대한 현상이 이전에는 임진왜란 중의 전공을 우대한다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조선과 명나라의 긴밀한 관계를 증명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 조선 국왕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측면과 더불어 명나라 군과 함께 중화문화를 수호했던 조선중화주의의 상징적 인물로서 중요한 현상의 대상이 된 것이다.¹⁸⁾

조선중화주의의 대두 속에서 이순신은 조선의 수호자를 넘어 중화 문명을 지킨 영웅으로 재평가된다. 효종 8년에 『선조실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순신을 이전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¹⁹⁾, 효종 10년에는 남해군 노량에 충무공 이순신의 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현종 4년에는 이순신의 사당 충렬사에 편액을 내리면서 이순신을 위한 제문을 지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순신을 중국 남송대의 충신이요 장수였던 악비(岳飛)에 비교하면서 그의 충성과 용맹을 칭송”²⁰⁾하였다. 이처럼 중화질서의 맥락에서 이순신은 새롭게 위치 지어졌던 것이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시작된 이순신 인식과 추모사업이 꽃을 피운 것은 정조대에 이르러서였다. 정조의 명으로 『이충무공전서』가 편찬되었으며, 정조는 신종의 제삿날 이순신을 영의정으로 추중한다는 교서를 내리면서, “신종 황제가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다시 살게 만든 은혜는 하늘처럼

18) 노영구(2004), pp. 343-348.

19) 임진왜란 직후의 논공행상 과정에서는 선조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순신을 원공과 같은 등급인 선무공신(宣武功臣) 정도로만 평가하고자 했다[정두희(2007),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역사와 역사화」,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정두희·이경순 엮음, 휴머니스트, p. 195].

20) 최지혜(2014),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인식의 시대별 변화」, 『이순신연구논총』 21호, p. 6.

다함이 없다.”거나 “(조선처럼) 작은 나라의 한 신하로서 명나라의 은총을 입어 천하의 명장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충무공이다.”²¹⁾라고 말한다. 나아가 이순신이 빼어난 것은 명나라의 신종 황제로부터 도독(都督)의 인(印)을 받아 명장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²²⁾ 이후에도 조선 후기 선비들은 “이순신을 왕에게 충절을 바친 인물로 인식하였으며, 그들은 이순신을 통하여 명에 대한 사대사상을 고취”²³⁾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나라 군대가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최소한 공식적인 담론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했다.²⁴⁾ 임진왜란 시기에

21) 정두희(2007), p. 200.

22) 정두희(2007), pp. 200-203.

23) 최지혜(2014), p. 2.

24) 조선시대 일반인들의 시각을 살펴보기 위한 문헌으로는 고전 소설 『임진록』을 살펴보는 것이 적당하다. 100여 종의 이본이 전하는 고전소설 『임진록』을 모두 검토한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전소설 『임진록』 연구의 권위자들이 그동안 펼친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임진록』은 표기문자에 따라 한글본과 한문본으로 나뉜다. 장경남은 『임진록』의 여러 이본 중에서 한글 경판본을 바탕으로 하고 한남대학교 소장본(구 송전대본)을 참고로 하여 쓴 『임진록』(휴머니스트, 2014)에 나타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형상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소설 속에 드러난 선조와 이여송의 대결이 명나라에 대한 조선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임진록』은 여전히 이여송 개인의 비범한 면모를 그려 내어 영웅화”(「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영웅들의 파노라마」, p. 213)한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선 사회에는 대국인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있었”으며, “더구나 임진왜란 후에는 ‘명나라는 은혜의 나라’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결과로 보고 있다. 결국 “사대주의적 시각이 명나라를 부정할 수 없게 하고 여전히 이여송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p. 213)다는 것이다. 장경남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문필사본 『임진록』을 주석하고 번역한 『역주 임진록』의 서문에서 역사계열 한문본 『임진록』의 형성시기 확정과 관련해, 17세기 초에 형성되었다는 주장을 “중화사상이 두드러진 점”(장경남, 「서문」, 『역주 임진록』, 장경남·이민호·장우석 공역, 보고사, 2019, p. 8)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17세기 중후반에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작품 내용이 전반적으로 명나라의 ‘제조지은’을 강조하는 숭명의식이 강하고 선조에서 인조로 이어지는 정통성이 강조된”(p. 8)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고 파악하였다. 결국 한문본 『임진록』은 기본적으로 ‘숭명의식’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조선에 온 대표적인 인물 이여송이나 진린은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승양의 대상이 된다.

3. 근대전환기 이순신 서사에 나타난 明(人) 인식

3.1. 신채호의 『이순신전』에 나타난 명(인) 인식

신채호의 『이순신전』은 본래 『水軍 第一偉人 李舜臣』이라는 이름으로 『大韓每日申報』(1908. 5. 2~8. 18)에 국한문으로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대한매일신보』 국문판에 패서싱의 번역으로 「슈군의 데일 거룩한 인물 리순신전」이라는 이름으로 1908년 6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4일까지 연재되었다. 임진왜란과 이순신이 근대에 들어 민족주의적 계기로 활용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²⁵⁾ 이 작품에는 선명한 민족주의가 나타난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嗚呼라, 嶋國殊種이 代代 韓國의 血敵이 되야 一葦 相望에 視線이 毒注 하고”²⁶⁾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일의식과 연결되어 있다.²⁷⁾

이순신의 민족사적 위상은 오랫동안 왜구와 맞서 싸워온 거룩한 조상의 계보 속에 놓인다. 그 위인에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 태종 무열왕, 고

선행 논의를 통해 『임진록』에 나타난 명(인)에 대한 인식은 지배층의 공식담론과는 달리 중층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명(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배층의 담론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다.

- 25) 한국인들에게 임진왜란과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은 동일시되었으며, 일본과 일본인은 한국인의 적이요 원수로서 선명하게 기억되었다. 이 적개심이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각성을 촉구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정두희(2007), p. 189].
- 26) 신채호(2018), 김주현 주해, 『이순신』, 경북대 출판부, p. 241.
- 27) 조선 시대에 이순신에 대한 추모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는 기제로서 해석될 수 있었으나, 조선을 침략한 왜적 혹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북돋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정두희(2007), p. 206].

려 김방경과 정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순신이 포함된다. 이러한 저항적 민족주의는 신채호에게는 절대적인 성질의 것이어서, 그것은 손쉽게 공격적 민족주의의 외양을 취하기도 한다. 이순신에게 알맞은 지위를 맡겨서 그 재주와 능력을 발휘하게 하였다면 옛 고구려 땅인 길림과 봉천을 회복하거나 일본 오사카와 규슈 지역의 모든 섬을 토벌할 수 있었으리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이순신이 정유년에 무고를 당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이순신이 소인배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일본으로 쳐들어가 쓰시마와 규슈를 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 오사카로 가서 왜적의 심장을 무찔렀을 것이라고 단언한다.²⁸⁾

이 작품에서는 일본군을 시종일관 ‘왜적’으로 지칭하며, 그들의 만행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 이신동이라는 백성은 왜적들이 포구에 와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서 배에 실어 놓고 저녁이 되어 배 위에서 소를 잡고 술을 먹으며 새벽이 되도록 노랫소리와 피리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증언을 한다. 이순신은 왜적이 물에서 패하면 육지로 달아나 백성을 죽이고 약탈을 하기 때문에 싸움을 잠시 멈추기도 한다. 『이순신전』에서는 명량해전에서 대패한 일본군이 이순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순신의 아들과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된다.

신채호의 『이순신전』은 동시기 일본인들의 이순신 서사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 텍스트이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는 특이하게도 이순신과 벨슨을 비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은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서

28) 「수군제일위인 이순신전」을 집필하던 시기 신채호는 자강론을 바탕으로 영웅 중심 역사관을 강조했다[신일철(1981), 『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 고려대출판부]. 김성진은 신채호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우월한 민족이 승리하고 열등한 민족은 패배한다는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인 민족주의는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커져서’ 다른 민족에 맞서고 다른 민족을 제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김성진(2017), p. 136]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순신과 넬슨이 비교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키코세이(惜香生)가 1892년에 쓴 『朝鮮 李舜臣傳』²⁹⁾은 나폴레옹으로부터 영국을 구한 넬슨과 이순신을 비교하고 있다. “영국을 지켜 나폴레옹의 발굽 아래 들지 않게 한 것은 영국의 이순신, 넬슨의 공이요, 조선을 지켜 국운의 쇠락을 만회한 것은 실로 조선의 넬슨, 이순신의 웅대한 지략”³⁰⁾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둘의 유사점으로 최후의 싸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 등을 들고 있다. 신채호는 세키코세이의 의견을 알고 있었으며, 이순신과 넬슨을 비슷한 위치에 둔 세키코세이와 달리 이순신의 우월함을 밝히기 위해 작품의 마지막에 넬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침략이라는 당대적 문제의식 아래서 쓰여졌기에 신채호의 『이순신전』에서는 명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명나라에 대한 인식은 앞에서 살펴본 『난중일기』, 『이충무공행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진린의 성품이 조급하고 거칠지만 이순신이 이를 잘 다스리는 것, 명나라 군사가 조선인들을 괴롭히자 이순신이 지혜롭게 바로 잡는 것, 진린이 물욕에 눈이 멀어 소서행장과 내통하는 것,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지막 전투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 등이 모두 그러하다. 오히려 임금과 조정은 “幸者 內地兵民의 血과 恩隣援助의 力으로 舊都에 還”(272)한 것이라거나 “外國 援兵이 來 亨야 軍威를 增壯 亨니, 此는 虎腋에 翼을 附 亨이라”(294)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명(인)을 은인으로서 인식한다.

그러나 신채호의 『이순신전』에서 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정적 인식은 다음과 같은 문장 정도에 그칠 뿐이다.

29) 이 저서는 이순신의 생애에 대한 설명을 대부분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가져오고 있다. 일본인들은 1695년에 일본판 『징비록』인 『朝鮮 征戡錄』이 교토에서 출간되면서부터 이순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한다[이종각(2018), 『일본인과 이순신』, 이상, pp. 46-48].

30) 사토 데쓰타로(佐藤 鐵太郎)·세키코세이(惜香生)·오가사와라 나가나리(小笠原長生)(2019), 『이순신 홀로 조선을 구하다』, 김해경 옮김, 가가날, p. 99.

蓋當時 支那援將 等이 其面에는 忠憤의 色을 帶호며 其口로는 慷慨의 言을 發호나, 然이나 彼輩는 黃金 幾片만 見호면 其 忠憤 其 慷慨가 天外로 飛去호고 全身이 彼 黃金에 向호야 恭敬下拜하는 者니 如此 豎子 等과 何事를 能成하리오. 故로 彼輩의 內援이 李舜臣에게 尺害는 有호나 寸利는 無호도다. (294)

신채호가 『이순신전』 외에도 수나라에 저항한 을지문덕에 대한 서사인 『을지문덕』(1908)을 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³¹⁾, 그는 중국의 부당한 힘으로부터도 독립한 자주적이고 당당한 민족을 추구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한 시대적 상황에서, 신채호는 이순신을 대상으로 한 서사에서는 반일에 초점을 맞추어 『이순신전』을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이광수의 『이순신』에 나타난 명(인) 인식

이광수의 『이순신』(『동아일보』, 1931. 6. 26~1932. 4. 3)³²⁾에서 신채호의 『이순신전』에서와 같은 민족의식에 바탕한 반일의식은 찾아보기 어

-
- 31) 신채호는 을지문덕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의 체험이 일종의 영적인 현현(epiphany)과 비슷했다고 고백하였다. 신채호는 자신이 을지문덕의 행적을 듣기 전에는 한국사는 오직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중국이 한마디만 해도 조선의 위축된 왕실은 꿈쩍 없이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조선의 역사는 조선인의 심성 자체가 본래 ‘열등하고 나약한’ 것으로 서술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지문덕을 알고 나서 신채호는 “이렇게 강하고 용감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전파하고자 쓴 것이 바로 『을지문덕』(1908)이다[Andre Schmid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정여울 옮김, 휴머니스트, pp. 176-178].
- 32) 춘원은 1910년 3월 『소년』지에 「우리영웅 충무공 이순신」을 발표하였다. 『이순신』 연재를 시작하기 1년 전에는 「충무공 유적 순례」(『동아일보』, 1930. 5. 21~6. 8)를, 『이순신』 연재 중이던 1931년 7월과 8월에는 『이충무공행록』을 『동광』에 번역하여 발표한 바 있다.

럽다. 일본군이 조선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서사의 진행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극히 간소하게 요점만 전달한다. 평양에서 패한 소서행장이 서울에 들어와 일으킨 조선인 대학살은, “이 날에 서울에 있던 조선 사람은 특히 일본군에 붙은 상류계급을 내어놓고는 하나 아니 남고 다 살륙을 당하였다고 한다. 또 촌락도 많이 불을 놓아 서울 장안이 하룻 동안에 초토가 되고 무인지경이 되었다고 한다.”³³⁾와 같이 제3자적인 태도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명나라 군사가 조선인에게 폐를 끼치는 모습은 매우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그려진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뽑아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평양에 입성한 뒤에 명군이 조선 군사와 인민에게 대한 폭행은 여간이 아니었다. 말이 통치 못하여 조금만 제 뜻대로 아니 되면 곧 칼 등으로 조선 군사를 따리고, 조선 군사가 얻은 수급이나 노획품이나 다 빼앗아서 제 것으로 맨들었다. 그리고 실수한 것은 모든 조선군의 책임으로 돌렸다. (1931. 12. 13)

여송의 군사가 개성에 들때 군률이 해이하야 장졸들은 맘대로 여염에 출몰하여 민가의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를 겁간하여 백성들은 다시 이사하기를 시작하였다. (중략) 청병을 해 온다는 것이 원수를 몰아온 것을 조선 사람들은 후회하였다. (1931. 12. 17)

경상남도 각지에 류정(劉綈) 등이 거느린 명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전혀 싸울 뜻이 없고 오직 민간의 양식을 먹고 부녀를 겁탈하고 행패를 할 뿐이었다. 전라도 곡식을 날아다가 명병을 먹이노라고 전라, 경상, 양도 백성은 부역에 죽을 지경이었다. (1932. 1. 7)

33) 『동아일보』, 1931. 12. 15. 앞으로의 인용 시 발표된 날짜만 본문 중에 기록하기로 한다.

이러하건마는 명병만은 배끓은 줄을 모르고 날마다 술과 고기에 묻어 지내었다. 조선 백성들은 산에 올라 풀잎사귀, 풀뿌리, 송기, 느릅나무 껍질과 뿌리를 벗겨 먹어 산이 뽕얇게 동탁하였다.

명나라 군사가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토하여 놓은 것을 백성들이 다토아 훔아먹고 힘이 약하여서 못 얻어 먹은 이는 곁에 서서 울었다. (1932. 1. 8)

리중성은 개구리를 좋아하여 전라도 남원에 내려와 앉어서는 백성들로 하여곰 개구리를 잡아들이게 하며 날로 소를 잡고 새 술을 명하고 새 계집을 들이라 하여 그 폐단이 여간이 아니었다. 천사라고 하니 그의 위엄은 무서웠다. 그를 따르는 장졸뿐 아니라 조선 지경에 잇는 명나라 장졸들은 거의 다 한,둘의 조선 녀자를 처첩으로 삼았다. (1932. 1. 9)

일본군 선봉대가 온 것을 보고 명장 양원(楊元)과 그 부하 명병들은 모도 무서운 생각이 낫다. 그들은 남원에 들어온 후도 전라도 각지에서 소와 도야지를 가져다가 날마다 배젓 먹고 취하고 또 양가 여자들을 붙들어다가 진중에 두고 희롱하였다. 아모리 미미한 졸병이라도 조선 여자를 한,둘씩 희롱하지 아니한 자는 없었다. 남원 부내에 사는 조선 백성들은 다 그 처가족을 산으로 피난 보내고 늙은 부녀들만 남아 잇었다. 술취한 명병은 주야를 불문하고 문을 차고 민가에 들어와서는 손으로 음란한 시늉을 하면서 여자를 내어놓으라고 주인을 따랐다. 어린 아이, 젊은 남자까지도 옷을 벗기고 음란한 짓을 하였다. 그래도 백성들은 감히 반항을 못 하였다.

이렇게 행악을 하고 향락에만 빠졌던 명병들은 일본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 다들 겁을 집어먹었다. (1932. 2. 21)

또 명병에 대해서는 당시 명병을 친히 본 지방에서는 다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였다. 명병이라면 소졸까지도 오만무례하고 행악이 막심하여 적군이나 다름이 없는 데다가 일본과 싸워서 이겨 본 것

은 평양 싸움 하나뿐이오, 평양 싸움에서도 앞장을 서서 큰 공을 일운 것은 조선 군사였다. 리여송(李如松)은 벽제관 한 싸움에 쫓겨 달아났고, 류정(劉綎) 같은 자는 싸움은커녕 도로혀 적에게 매수되어서 리순신의 행동을 방해나 놓을 뿐이었다. (1932. 2. 23)

음식이나 의복이나 조선병과 명병과는 큰 차별이 있었다. 명병은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술과 고기를 막 먹어도 조선 군사는 명병이 내어버리는 것을 얻어먹고, 조선 병정 중에 아마리 지위가 높은 이라도 명병 중에 가장 지위가 낮은 이보다도 낮았다. 그래서 걸핏하면 욕을 얻어먹고 매를 얻어맞고 심지어는 까닭없이 모뎀매를 맞아 죽는 이도 있었다. 이러한 고초를 겪어도 조정에서나 대관들이나 다들 명나라 장졸에게 아첨하고 시종들기에 그들은 돌아봄을 받지도 못하였다. (1932. 3. 20)

명군은 일본군의 무력에 겁을 집어 먹고 어떻게든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만 그려진다. “원래 명군은 일본군을 무서워함이 여간이 아니었다.”(1932. 3. 18)는 말에 부합하는 존재들로서, 벽제관 전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전투에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싸움을 피한다. 명군의 최고 지도자인 이여송은 말에서 떨어진 것이 불쾌하여 이후에는 적의 형세를 염탐해 보지도 않는 장수로 그려질 정도이다.

이상에 등장하는 명군의 모습, 즉 온갖 민폐를 끼치면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회피하는 모습을 완전한 날조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임진왜란에 대한 권위 있는 기록으로 인정받는 유성룡의 『西厓集』에도 부정적인 명군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광수의 『이순신』은 명나라군에 대하여 이전의 텍스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장과 왜곡을 하고 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광수의 『이순신』에서 일본과의 협상을 도맡았던 심유경은 처음부터 조선의 왕과 대신들을 자기의 수하처럼 여기는 “안하무인”

의 “일개 부랑자”(1931. 12. 9)로 규정된다. 그러나 『징비록』에서는 심유경을 “절강성 사람”³⁴⁾으로만 소개하고 있으며,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서너 명의 부하만 대동하고 평양성에 들어가 왜장과 담판을 짓는 용감한 모습으로 묘사한다.

이광수의 『이순신』에서 이여송은 명군의 군량 거행을 등한히 하겠다는 이유로, 유성룡을 끌어와 군법 시행을 하려 한다. 이 때 명군은 혁편을 들어 유성룡이 탄 말을 때리는 듯 유성룡의 어깨로부터 등을 후려갈기고, 둘째 혁편으로는 유성룡의 얼굴을 때린다. 이여송의 진문 앞에서는 “류성룡을 말에서 끌어내려 군노가 죄인을 잡아들이듯이 성룡의 목덜미를 잡고 무릎으로 궁둥이를 차서 여송의 장하에 깔”(1931. 12. 18)린다. 이런 일을 겪으며 유성룡은 “명나라에게 멸시받는 내 나라 사람의 처지를 우는, 가슴이 터지는 눈물”(1931. 12. 18)을 흘린다. 결국 유성룡을 비롯한 호조판서와 경기감사가 분과 설움이 터져서 통곡을 한 후에야, 이여송은 유성룡을 풀어준다. 그러나 『징비록』에서는 군량이 바닥 나자 이여송이 화를 내며 유성룡과 호조판서 이성중, 경기 좌감사 이정형을 끌어앉히고는 큰소리로 문책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된다. 이에 유성룡은 우선 사죄하면서 제독을 진정시키고, “나라의 모습이 어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생각”(164)에 눈물을 흘릴 뿐이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던 명 총병 양원은 적군을 맞아 싸울 용기는 없고 오직 적군이 숨어서 싸울 자리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민가를 온통 불살라 원성만 산다. 왜적이 풀을 베어 성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명병은 중추라 하여 술과 떡을 먹고 질탕”(1932. 2. 23)하게 논다. 적군이 성으로 기어오르자 “명 총병 양원(楊元) 이하 장졸은 성중에 있던 재물을 약탈하여 몸에 지니고 말을 타고 북문으로 달아”(1932. 2. 23)난다. 달아나지만 곧 일본군에 붙잡혀서 “말에서 내려서 찾던 칼과

34) 유성룡(2014), p. 133.

부절(符節)과 몸에 지녔던 은금을 넣은 전대를 끌어 두 손으로 받들고”(1932. 2. 24) 목숨을 구걸한다. 이런 명나라 군사들을 보고 조선인 김경로가 하는 “오랑캐놈들”(1932. 2. 24)이라는 표현은, 이광수가 『이순신』을 통해 조선 시대의 중화질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질서 속 위계가 이 작품에서는 전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징비록』에서는 양원이 “요동에서 활동하던 장수라 오랑캐와 싸울 줄은 알았지만 왜적과의 싸움에는 미숙했기 때문에 패한 것”(208)이라고 하여, 능력에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결코 술이나 재물을 탐하는 부도덕한 인물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왜적이 온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도망치기에 바쁠 때, 양원이 이끌고 온 요동마군 3,000명만이 남아 성을 지키고, 처음에는 오지 않으려 하던 전라 병사 이복남 등을 불러들여 왜적과 맞서 싸우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광수의 『이순신』에서 명군은 조선군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려진다. 정유재란을 일으키며 가등청정 이하 일본 장졸은 입버릇처럼 “명나라는 두렵지 않지만 리순신이 큰일이다!”(1932. 1. 19)라고 말한다. 노량해전에서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은 통사를 시켜, “대명수군제독 진린(大明水軍提督陳璘)이 황상의 명을 받고 여기 있으니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1932. 4. 1)고 호령하지만, 일본군은 “우리는 조선 수군과 싸우라는 것이 오, 대명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니 비켜서라.”(1932. 4. 1)며 무시한다.

오히려 명군은 조선군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이다. “명군은 남원의 패전이나 벽제관의 패전이나 다 조선군이, 혹은 겁이 나서 먼저 달아나고 혹은 적과 통하여 군기를 누설한 책임으로 돌”(1932. 3. 19)리려 한다. 진린이 거느린 명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순신은 “조선군과 명군이 도저히 같이 하기 어려울 것과 또 명군이 싸움에 방해는 될지언정 도움이 되지 못할 것”(1932. 3. 17)을 염려한다. 그러나 명나라 군의 참전이 임진왜란의 전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

실이다.³⁵⁾

『징비록』에는 임진년 12월에 이어송을 대장으로 하여 파견된 명나라 대군을 보고, 유성룡이 “역시 대군답게 진의 모습이 질서 정연하고 군율도 잘 지켜지고 있었다.”³⁶⁾고 감탄하는 대목이 나온다. 또한 유성룡이 평양성을 수복한 이후 동파에 머물 때, 명나라 장수 사대수 총병이 “만약 적이 들이닥친다 해도 나는 죽고 살기를 체찰사와 함께 하겠소.”(169)라며, 최선을 다해 유성룡을 지키는 모습이 언급된다. 사대수 총병은 길가에서 죽은 어미의 젖을 빠는 아기를 데려다 기르기도 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명나라 장수들이 자신들의 군량 30석을 내놓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가장 문제적인 지점은 이순신의 죽음이 진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순신 혼자서도 넉넉히 적을 소탕할 수 있을 때에 내려온 진린은 “이름은 청병이나 기실은 순신의 행동을 방해하여 적을 놓아 보내고 마츰내는 순신을 죽게 하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1932. 3. 23)고 명시된다. 그믐날과 1일, 2일에 이순신은 진린에게 총공격을 청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3일에는 이순신이 극력으로 재촉하여 총공격을 감행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명나라 군이 큰 피해를 입자, 진린은 “마치 모든 것이 순신의 책임이나 되는 듯이 분해하고 화를”(1932. 3. 27) 낸다. 이순신은 “명장 진린(陳璘)의 방해”(1932. 3. 30)로 왜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고금도의 본영으로 돌아간다. 이 와중에 명나라 장수 유정은 일본 여자까지 포함된 뇌물을 소서행장에게 받은 후에는 싸우지 않으며, 진린도 무수한 뇌물을 소서행장으로부터 받는다. 11월 18일의 노량해전에서 진린은 시기심이나 자만심으로 이순신을 방해만 하고, 결정적으로 이순신은 진린이 위태로워진 것을 보고 친히 배를 끌고 진린을 구하

35) Kenneth M. Swope (2007), 「순망치한 — 명나라가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정두희·이경순 엮음, 휴머니스트, pp. 317-354.

36) 유성룡(2014), p. 154.

러 갔다가 일본군의 집중 사격을 받고 전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린을 위협에서 구해내인 순신은 마침내 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1932. 4. 3.)은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광수가 이처럼 무능하고 비도덕적이며 잔인한 명나라의 편에 위정자들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왕은 일찌감치 “명나라에 들어가 붙는 것은 원래 내 뜻이라.”(1931. 7. 29)라고 하여, 명나라로 도망갈 생각만 한다. 평양성을 떠날 때도 백성을 속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에는 까딱도 하지 않지만, “명나라의 의심”(1931. 10. 16)을 산다는 말에는 두려움을 느낀다. 조정에서는 “명나라 구원병을 기다리는 것과 동인 서인의 당파 싸움”(1931. 11. 21) 밖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소설 속에서는 유성룡이 혁편에 맞고, 조정 대신들이 이 모습을 보며 통곡을 하면서도 “명나라에 의지하는 사대심을 버리지 못하였다.”(1931. 12. 18)고 설명된다.

이처럼 명나라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당연히 작가의 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순신을 중화문명의 수호자이자 명나라와의 우호를 상징하는 존재로 받아들였던 조선 시대 지배층에 대한 통렬한 부정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 도둑으로 자처하거나 자칭”(1932. 3. 25)하는 일이 없으며, 자기의 관명을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상 조선 벼슬인 “삼도 수군통제사라는 직함”(1932. 3. 25)만 쓴다. 이를 두고 서술자는 “순신의 머리에 유명수군 도둑이란 것을 모든 조선 직함보다도 먼저 쓴 것은 제 나라보다도 명나라를 존중하는 호사사람들(글 잘하고 지위 있는)이었고 조선의 문백성들은 순신과 함께 통제사라고 불렀다.”(1932. 3. 25.)라고 하여, 중화사상에 바탕해서 이순신을 위치 짓는 조선시대 사대부들(글 잘하고 지위 있는)의 생각이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중화적 질서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만들어낸 명나라에 대한 과도한 비하는, 그동안 이순신을 다룬 어떤 텍스트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

의 일본인상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바로 대의와 전체를 위해 개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무사도(武士道)에 충실한 인간상이다.³⁷⁾ 당포해전에서 죽은 적장에 대해 그와 15일 간 부부생활의 정을 나누는 여대는 “죽을 때에 겁이 없이 태연하던 것을 자랑하는 듯”(1931. 8. 23)한 태도로 이순신에게 말한다. 죽음으로부터 초연한 이러한 모습은 무사도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해당한다.³⁸⁾ 전체를 위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에 조선의 장수 이순신은 술을 올리

37) 무사도의 고전으로 꼽히는 『하가쿠레』(葉隠, 1716년)에서 아마모토 쓰네토모(田代陳基)는 반복해서 무사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무사도의 근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사도란 ‘죽음’을 깨닫는 것이다. 생과 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죽음을 선택하면 된다. 아무것도 생각할 것 없다. 각오를 굳게 하고 돌진하라.”[아마모토 쓰네토모(田代陳基, 2013), 『하가쿠레』(葉隠), 이강희 옮김, 사과나무, p. 13]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 하나의 무사도에 대한 고전인 다이도지 유잔(大道寺友山)의 『부도쇼신슈』(武道初心集, 1720년)에서 “무사는 항상 죽음을 각오하고 생활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충론」에서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 죽음을 잊지 말고 생활 하라고 훈계”[구태훈(2017), 『사무라이와 무사도』, 히스토리메이커, p. 232에서 재인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무사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자세,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다. 무사도라는 것은 곧 죽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무사사회의 이러한 토양에서 생성된 것”[구태훈(2017), p. 308]이다.

38) 연구사 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거의 모든 논의는 이광수의 『이순신』이 「민족개조론」(1922)의 연장선상에서 자학적 민족관을 드러낸 작품으로 파악하였다. 이순신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민족구성원을 부정적으로 그렸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민웅은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의 연장선상에서 이순신을 제외한 모든 조선 사람들은 열등했고 이로 인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부각하려는 듯한 서술”[이민웅(2007), pp. 82-83]을 했다고 보았고, 김성진도 “이순신과 대비되는 무능한 지배층, 그리고 지배층이 타락시킨 백성의 모습까지, <이순신>은 「민족개조론」의 소설 관에 가깝다.”[김성진(2017), p. 142]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조정의 대신들이나 벼슬아치를 제외한 일반 백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용감하게 싸우는 평양 병정 임옥경의 사례가 그러하고, 거북선을 건조한 장면에서도 “이렇게 거북선을 칭찬하고 그것을 만들어 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순박한 백성들뿐이었다.”(1931. 6. 30)고 하여 지배층과는 구별되는 백성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며 애도한다.

일본군은 이러한 무사도의 정신에 충실할 때에는 조선인에게도 예를 갖춘다. 적군의 대장 평의지는 동래성에서 끝까지 항거하다 장렬하게 죽은 송상현의 시체를 수습하여 동문 밖에 장사지내게 하고 남편을 따라 죽은 송상현의 첩 김섬도 그 곁에 묻게 한다. 김제 군수 정담해와 해남 현감 변응정도 죽을 때까지 왜적에 맞서 싸우고 군사들도 정담해와 변응정의 의기에 감복하여 모두 다 싸우다 죽는다. 이에 왜장은 군사를 시켜 이편 장졸의 시체를 모아 큰 무덤 여럿을 만들고 그 위에 목패를 깎아, “弔朝鮮國忠義膽”(1931. 12. 8)이라고 써 세운다.

아예 사무라이식 죽음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도 있다. 진과좌마윤은 이순신 부대에 패하자 자기만 목숨을 보전하여 도망한 것이 부끄러워 동을 향하여 자기의 임금과 조상의 영을 부르며 통곡하고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 배를 갈라 죽”(1931. 11. 11)는다. 따르던 장졸 20여 명도 진과좌마윤처럼 배를 갈라 죽는다. 이튿날 조선 군사들이 진과좌마윤 이하 20여 명의 일본군이 배를 갈라 죽은 자리를 발견하여 이순신에게 보고하자, 이순신은 “땅을 파고 그 시체들을 묻고 술을 부어 적의 충혼을 위로”(1931. 11. 11)한다.

이광수의 『이순신』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텍스트로서, 오히려 적개심의 중요한 계기들을 완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면으로 명량해전의 보복으로 일본군이 이순신의 아들 면을 살해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일본군은 면을 만나자 항복을 권유하고, 면이 이를 거부하자 “갑옷과 투구를 벗”(1932. 3. 16)고 정정당당하게 일대일 대결을 자청한다. 심지어 조선인이 일본군을 적대시하기보다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장면도 등장한다. 피난민은 일본군이 “다라날 때에 우리 사람을 만나도 죽일 뜻은 없고 길에서도 통곡을 하며 다라났소.”(1931. 8. 23)라고 증언하기도 하며, 소서행장 일행이 명군에게 평양성을 잃고 떠날 때도, “그들은 춘려에 들어가 배를 가르치고 입을 가르쳐

밥을 빌어먹으나 조선 사람 중에는 그들을 해하라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1931. 12. 13.)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것이다.

대의를 위해 죽음을 가벼이 여기며,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르는 일본군의 모습은 이광수의 관념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594년 3월 명나라 도사(都司) 담종인(譚宗仁)이 일본과의 강화를 위해 이순신에게 일본군과 싸우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순신은 답신을 보내는데, 거기에는 일본군에 대한 맹렬한 적의가 가득하다. 그 답신에 따르면, 이순신에게 일본군은 불구대천의 원수이자, 신의가 없으며 흉악하고 교활한 적도들에 불과하다.³⁹⁾ 이에 비추어 볼 때, 장렬하게 전사한 왜군에게 술을 따르는 이순신의 모습은 이광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창조의 연장선상에서 이전의 서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우호적인 모습의 일본인 형상도 이해할 수 있다.

4. 명(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낳은 시대 상황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채호의 『이순신전』과 이광수의 『이순신』에 나타난 명나라 인식은 판이하게 다르다. 신채호의 『이순신전』에서 명나라는 『난중일기』나 『이충무공행록』에 등장하는 명나라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게 드러날 뿐, 명나라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특별하게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광수의 『이순신』은 조금 과장하자면, 임진왜란을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아닌 조선과 명나라의 전쟁으로 형상화했다고 할 만큼 명(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었다. 과연 이러한 차이를 낳은 이유는 무엇일까?

39) 이종각(2018), 『이충무공전서』 권1, 잡저, p. 244에서 재인용.

이 글에서는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를 작품이 창작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찾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이 타당한 이유 중의 하나는 두 작품 모두 시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신문연재소설이기 때문이다. 먼저 신채호의 『이순신전』은 일제의 침탈이 극에 달한 을사조약 이후의 1908년에 창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일본으로 대표되는 외세의 침탈이야말로 민족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신채호는 『이순신전』에서 1866년 강화도에서 발생한 병인양요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삼도수군통제사 충무공 이순신을 떠올린다고 밝힌다.

累累衆生이 空手來 空手去호야, 丙寅年 江華砲聲만 耳邊에 偶墮호
면 各各 男負女戴호고 草根石窟을 爭尋호야 一命을 苟保호다가 畢竟
에는 生無益호며 死無損호야 荒山枯骨이 草木과 同腐하는데(243)

병인양요는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으로 이어지는 근대 제국주의 세력의 조선 침탈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은 사건이다. 병인양요가 발발하고 9년 후에 일본은 페리 제독에 의해 개항을 강요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요호 사건을 강화도에서 일으켜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였다.⁴⁰⁾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항을 강요하였다. 1875년 일본 군함이 강화도를 침략하여 대포를 쏘고 조선 군인들을 죽였지만, 조선 정부는 정당한 대응이나 항의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듬해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는다. 이 강화도 조약은 한일합방으로 이어지는 일제 침략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채호는 이러한 일제 침략이라는 역사의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二十世紀의 太平洋을 莊嚴호고 第二 李舜臣을 待”(314)하는 마음으로 『이순신전』을 집필한 것이다. 이처럼 신채호의 『이순신전』은 1866년 병인양요로 표상되는 시대적

40)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2002), 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pp. 86-93.

상황과 연결시켜 이해해야만 한다.

그동안 이광수의 『이순신』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시킨 논의는 주로 1930년대 초에 동아일보사에서 주도한 이순신 유적 보존 운동에 주목하였다. 『동아일보』는 1931년 5월 13일 이순신의 위토(位土)가 경매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5월 14일 사설에서도 이 사건을 “민족적 수치”로 규정했다. 이에 신문 독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5월 23일에는 ‘이충무공 유적 보존회’가 창립되기에 이른다. 김성연은 “『동아일보』의 이순신 유적 보존 운동의 가운데에는 1931년 당시 편집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광수가 있었다.”⁴¹⁾고 주장한다. 이광수는 초대편집국장 이상협과 사장 송진우로부터 재차 이순신 소설 집필을 권고 받고는 위토경매사건 기사가 보도된 직후 이를 계기로 이순신 소설 연재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명(인)에 대한 형상화에 나타난 이광수의 고유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유적 보존 운동보다도 일제의 중국대륙침략이라는 맥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광수의 『이순신』이 연재되었던 1931년 6월 26일부터 1932년 4월 3일은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된 시기이자, 중국과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벌이던 시기이다. 이 시기를 특징 짓는 핵심적인 사건으로는 만보산 사건(1931. 7. 2), 만주사변(1931. 9. 18~1932. 3. 1)⁴²⁾, 상하이사변(1932. 1. 28~1932. 5. 5)⁴³⁾ 세 가

41) 김성연(2013), p. 47. 김주현도 연재를 시작하기 1년 전에 이광수는 「충무공 유적 순례」(『동아일보』, 1930. 5. 21~6. 8)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이충무공 묘소 땅이 경매에 부쳐질 위기에 처하자 전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동아일보사가 춘원에게 이충무공 유적 순례를 요청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춘원은 동아일보 기자 김군과 함께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순례를 하였으며, 그 체험을 바탕으로 「충무공 유적 순례」를 집필하였다[김주현(2016), 「이광수와 신채호의 만남, 그리고 영향」, 『한국현대문학연구』 48집, p. 158].

42) 만주사변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31년 9월 18일 오후 10시 20분, 관동군은 류조호(柳條湖)의 만철선을 폭파한 후 북대영(北大營)과 봉천성을 공격하여 하루만에 남만주의 요충지인 심양, 영구, 장춘 등 18개 도시를 점령하였다[가토

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우리 민족과 관련이 큰 만보산 사건이나 만주사변은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광수의 『이순신』은 전시에 쓰여진 일종의 전쟁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순신』이 전쟁 기간에 발표된 신문연재소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일본의 적인 중국과 연결되는 명(인)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광수가 『이순신』을 연재하던 기간 동안 『동아일보』 지면에는 만보산 사건이나 만주사변에 대한 기사나 논설 등이 집중적으로 발표된다. 만보산 사건에 대한 기사나 논설 등은 「開鑿工事は繼續하나 同胞排斥熱益昂」(1931. 7. 1)을 시작으로 「新義州戶數 昨年보다 減少」(1932. 3. 24)에 이르기까지 150여건이나 실렸으며, 만주사변에 대해서는 1931년 9월 21일 호외(號外)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1932년 4월 3일 「華校再

요코(加藤陽子, 2012), 김영숙 옮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어문학사, p. 126]. 23일에는 멀리 있는 길림까지 점령했으며, 사건 후 5일 만에 평톈성, 지린성의 주요 지역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후에도 10월 8일에는 진저우를 폭격했고, 북만주에도 병력을 진주시켜 11월 19일에는 치치하얼을 점령했다. 12월 22일 관동군은 ‘요서 일대의 토비 토벌’ 성명을 발표하고 요서작전을 개시하고, 1932년 1월 3일에는 만주 지역에서 중국 측의 최후거점인 진저우를 점령했다. 불과 3개월 남짓의 군사행동을 통해 일본군은 동북 3성을 완전히 제압했다. 관동군이 1932년 3월 1일 괴뢰 만주국(滿州國)을 세워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며 만주사변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일본역사학연구회(2017), 『태평양전쟁사 —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아르고 인문사회연구소 편역, 채륜, pp. 180-184].

- 43) 상하이 사변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주점령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자 일제는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상하이에서 일본의 만주침략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32년 1월 18일 일본인 승려가 구타당하자, 이를 빌미로 일본군은 본격적으로 무력을 동원한 것이다. 1월 21일에는 거류민보호를 명목으로 순양함과 제15구축대를 증파하기로 결정하고, 이 함대는 23일 상하이에 도착해 특별육전대를 상륙시킨다. 1월 28일에는 제2차 육전대를 일본조계에 파견하고, 29일 오전 0시를 기해 육전대 경비구역을 일본조계 밖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전황은 만주의 경우와 반대로 흘러서 일본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5월 5일 중일정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상하이에서 일본 육군이 철수하여 전투는 종결된다[일본역사학연구회(2017), pp. 190-191].

開學」까지 440여건의 기사나 논설 등이 실렸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나라, 그 중에서도 명군에 대한 형상화는 지나칠 정도로 부정적인 색채로 물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만보산 사건이나 만주사변이 『이순신』에 나타난 명(인)의 부정적 형상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그러한 형상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3.2절에서 명(인)이 부정적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직접 인용된 사례는 모두 20곳이 넘는데, 이것들은 모두 만보산 사건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다. 이 중에서 본문과 분리하여 길게 인용한 여덟 번의 사례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한 일곱 번의 사례는 모두 만주사변 기간에 발표된 것들이다. 또한 무사도에 충실한 일본군의 모습이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인용된 약 열 번의 사례도 모두 만보산 사건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며, 이 중에서 두 번을 뺀 나머지 사례는 모두 만주사변 기간에 발표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만보산(萬寶山) 사건⁴⁵⁾으로 인하여 조선 내에서 배화 열이 극에 이른 때이기도 하다. 중국측 자료에 따르면 만보산 사건으로 화교 중에서 142명이 사망하고, 546명 부상당했으며, 91명이 행방불명

44) 만보산 사건의 발생과 뒤이은 재만동포구제회 창립, 그리고 재만동포 위호 금품이 성금 지면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동아일보』 지면에서 “표면적으로는 이순신 특집이 만주사변 호외에 밀리는 형국”[김성연(2013), p. 51]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김성연은 만보산 사건이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보여주지 않는다.

45) 조선농민 300여 명은 창춘 서북방 50리 부근(만보산萬寶山과 이통하伊通河의 중간)에서 약 1,000정보 가량의 황무지를 수전으로 개간하기로 하고 중국인 지주와 차지(借地) 계약을 맺고 수로공사에 들어갔다. 중국인의 민족 가정이 고조되면서 1931년 5월 말 중국 관헌은 즉시 퇴거를 요구했고, 7월 1일에는 500명의 중국농민이 현지로 몰려와 소총, 권총을 쏘아댔고 제방과 수로를 파괴했다. 이것이 바로 널리 알려진 만보산 사건이다. 일본 측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했고, 그 결과 7월 2일 밤 인천을 시작으로 하여 조선 내 중국인에 대한 보복 폭행이 삼시간에 전 조선으로 번져갔다[일본역사학연구회(2017), pp. 162-163].

되었다고 한다. 만보산 사건과 그에 따른 배화열은 일제 시기 내내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이 가장 극에 달한 비극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역사문화적 이유(대표적으로 병자호란 당시 청으로부터 받은 조선의 극심한 피해 등을 들 수 있다)와 더불어 “한국인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다툼”⁴⁶⁾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이광수의 『이순신』에 나타난 과도할 정도의 명나라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는 만보산 사건, 만주사변, 상하이 사변이라는 시대적 분위기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이 글은 이순신을 다룬 서사에서 명(인)이 형상화되는 방식을 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신채호의 『이순신전』과 이광수의 『이순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두 작품은 한중일이 모두 참여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기존 논의에서는 이들 작품에 나타난 명(人)에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두 작품에 형상화된 명(인)의 모습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서사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의 당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난중일기』와 『이충무공행록』에서 명(인)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에 가깝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조선중화주의가 대두하며, 임진왜란 당시 명(인)에 대한 인식은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변한다.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에 온 대표적인 인물 이여송이나 진린은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숭양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근대전환기에 오면서 이러한 모습은 변모한다. 신채호의 『이

46) 김태웅(2017), 『이주노동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 아카넷, p. 9.

『이순신전』에는 강렬한 반일의식이 나타나지만, 명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명나라에 대한 인식은 앞에서 살펴본 『난중일기』, 『이충무공행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해 이광수의 『이순신』은 조금 과장하자면, 임진왜란을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아닌 조선과 명나라의 전쟁으로 형상화했다고 할 만큼 명(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화된 작품이다. 명군은 일본군의 무력에 겁을 집어 먹고 어떻게든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는 존재이자, 조선군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려진다. 오히려 명군은 조선군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이다. 가장 문제적인 지점은 이순신의 죽음이 진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조선인의 입을 통해 명나라 사람은 “오랑캐”라 불리기까지 한다. 이때의 ‘오랑캐’라는 말은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질서 속 위계가 이 작품에서 전도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중화적 질서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만들어낸 명나라에 대한 과도한 비하는, 그동안 이순신을 다룬 어떤 텍스트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의 일본인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대의와 전체를 위해 개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무사도(武士道)에 충실한 인간상이다. 이광수의 『이순신』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텍스트로서, 오히려 적개심의 중요한 계기들을 완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차이를 낳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그러한 이유를 작품이 창작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찾고자 하였다. 신채호의 『이순신전』은 작품 중에도 나오듯이 1866년 병인양요로 표상되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켜 이해해야만 한다. 이광수의 『이순신』이 작품이 연재되었던 1931년 6월 26일부터 1932년 4월 3일은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된 시기이자, 중국과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벌이던 시기이다. 이 시기를 특징짓는 핵심적인 사건으로는 만보산 사건, 만주사변, 상하이사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우리 민족과 관련이 매우 큰 만보산 사건이나 만주사변은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광수의 『이순신』은 전시에 쓰여진 일종의 전쟁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순신』이 신문연재소설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시 일본의 적인 중국과 연결되는 명(인)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자 료】

- 신채호(2018), 김주현 주해, 『이순신』, 경북대 출판부.
유성룡(2014), 김홍식 옮김, 『징비록』, 서해문집.
이광수(1930), 「충무공 유적 순례」, 『동아일보』, 1930. 5. 21~6. 8.
이광수(1931), 『이순신』, 『동아일보』, 1931. 6. 26~1932. 4. 3.
이순신(2010), 노승석 옮김, 『난중일기』, 민음사.
이분(1931), 이광수 역, 「이충무공행록」, 『동광』, 1931. 7~8.
이분(2019), 『이충무공행록 — 작은아버지 이순신』, 김해경 역, 가가날.
소재영·장경남 역주(1993), 『임진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논 저】

- 공임순(2003), 「역사소설의 양식과 이순신의 형성 문법」, 『한국근대문학연구』 4권 1호.
구태훈(2017), 『사무라이와 무사도』, 히스토리메이커.
김성연(2013), 「거북선이라는 외피와 『난중일기』라는 내면 : 1931년 여름, 『동아일보』와 이광수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40집.
김성진(2017), 「이순신 역사 소설에 투영된 작가와 시대의 욕망」, 『문학치료연구』 45집.
김주현(2016), 「이광수와 신채호의 만남, 그리고 영향」, 『한국현대문학연구』 48집.
노영구(2004), 「역사 속의 이순신 인식」, 『역사비평』 69호.
신일철(1981), 『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 고려대출판부.
이민웅(2007), 「역사 소설에 그려진 이순신」, 『한국사 시민강좌』 41호.
이종각(2018), 『일본인과 이순신』, 이상.
장경남(2007), 「이순신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35호.
장경남(2014),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 영웅들의 파노라마」, 『임진록』, 휴머니스트.

- 장경남(2019), 「서문」, 『역주 임진록』, 보고서.
- 정두희(2007),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역사와 역사화」,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정두희·이경순 엮음, 휴머니스트
- 최영호(2003),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한국 문학 속에 나타난 이순신」, 『이순신연구논총』 창간호.
- 최지혜(2014),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인식의 시대별 변화」, 『이순신연구논총』 21호.
- 한명기(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 허태구(2019),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 加藤陽子(2012), 김영숙 옮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어문학사.
- 小森陽一(2002), 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 日本歴史學研究會(2017), 아르고 인문사회연구소 편역, 『태평양전쟁사 —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채륜.
- 田代陳基(2013), 이강희 옮김, 『하가쿠레(葉隠)』, 사과나무.
- 佐藤 鐵太郎・惜香生・小笠原長生(2019), 김해경 옮김, 『이순신 홀로 조선을 구하다』, 가가날.
- Burbank, J. and C. Frederick (2016), 이재만 역, 『세계제국사』, 책과함께.
- Lowenthal, D. (2006), 김종원·한명숙 옮김, 『과거는 낫선 나라다』, 개마고원.
- Schmid, A. (2007), 정여울 옮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 Swope, K. M. (2007), 정두희·이경순 엮음, 「순망치한 — 명나라가 참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원고 접수일: 2020년 1월 11일

심사 완료일: 2020년 2월 4일

게재 확정일: 2020년 2월 12일

ABSTRACT

Recognition of the Ming Dynasty and Ming People
in Lee Sun-shin's Narrative

Lee, Kyung-jae*

This article examines the perception of the Ming Dynasty and Ming people as shown in Shin Chae-ho's *Lee Sun-shin* and Lee Kwang-soo's *Lee Sun-shin* about Lee Sun-shin. The work also aims to look at the mechanism of exclusion and solidarity through the national heroism narrative that emerged during the period of nation building. Although the two works are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China and Japan, previous discussions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perception of the Ming Dynasty shown in these works. The mechanism of exclusion and solidarity that occurs during the course of the formation of a nation-state is not only between Joseon and Japan, but also strongly manifested between Joseon and China. If Shin Chae-ho wanted to form a community based mainly on hostility toward Japan, it could be said that Lee Kwang-soo wanted to form a community based on his disdain for China rather than Japan. Lee Kwang-soo's *Lee Sun-shin* follows Lee In-jik's novel in terms of his portrait of China and Japan. The novel i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ongsil University

a work set during the Sino-Japanese War, also called the First Korean War. Lee In-jik's excessive (Japan-oriented) modern orientation has transformed Japan into a civilized country and inferiorized China into a barbaric country by using the universal law. After about a generation, Lee Kwang-soo also displayed his distorted political consciousness by staging another international war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called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difference also stems from the authors' basic world view, but it appears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he time when two newspaper serials were created. Shin Chae-ho's *Lee Sun-shin* was written in protest against the current of the era when imperialistic forces began to invade Joseon, as it appeared in his works. On the other hand, Lee Gwang-su's *Lee Sun-shin* was written during the Wanpaoshan Incident, during which antipathy against the Chinese was at the height of his fever and during the Manchurian Incident and Shanghai Incident. The period when Lee Gwang-su's *Lee Sun-shin* was written is an exhibition of Joseon, which was a Japanese colony, and this exhibition gave rise to an excessive degree of discrimination and contempt for people.